

내포에 ‘KAIST 영재학교’ 2028년 들어선다

(카이스트)

도·KAIST·홍성군 설립 추진 협약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KAIST 진학 등 과학분야 진출
올해 타당성 용역 추진 내년 설계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KAIST(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KAIST(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부산에 위치한 국립 과학영재학교로, 내포캠퍼스는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4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KAIST, 홍성군과 ‘KAIST(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

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은 반도체 후공정 전국 1위, 자동차 전국 3위로,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첨단산업의 핵심 지역이다.

이번 협약은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게 될 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등의 조기 설립을 위해 맺었다.

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841억 원을 투입, 충남 혁신도시 내(홍성군 홍북읍)에 설립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정부예산에 용역비 5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협약에 따라 도와 홍성군은 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조기 설립을 위해 건립 부지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KAIST(카이스트)는 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운영을 통해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또 도와 홍성군, KAIST(카이스트)는 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서산 개심사 청벚꽃에 쏠린 눈

국내 유일한 청벚꽃을 볼 수 있는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에 4월 22일 오후 관광객들이 몰려 활짝 핀 청벚꽃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개화가 보름가량 늦는 개심사에는 4월 중순부터 주말과 주중 모두 겹벚꽃을 보러온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개심사 진입 도로 주변이 심한 차량 정체를 빚었다. /도정신문팀

도는 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가 문을 열고 본격 가동하면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향상 ▲미래인재 양성, 중장기적으로는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에 설계비를 받

영시키고, 2028년 개교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KAIST(카이스트)의 모빌리티 분야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 내 기업들을 연계해 교육, 연구,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041-635-3222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영재학교로,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삽

내포신도시 949세대 공급
월 임대료 18만 원·초저금리 대출
6년 전 가격 분양 전환도 가능

충남도가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 공사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인근(RH16블럭)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보증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희망할 경우 전액의 80%를 1.7%까지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월 18만 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 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시 정한 분양가가 4억 원이라면, 6년이 지난 뒤 같은 규모의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으로 1억 원 올랐더라도 4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서 읍

선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켜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구입·설치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입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 8271㎡의 부지에 건축면적 16만 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또 시니어라운지,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그린카페 등도 설치하며, 주차장은 세대 당 1.46대로 편의성을 높인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예정이며,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조감도.

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정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총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축도시과 041-635-4666



민선8기충남도정

도정 비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부남호 역간척	3면
충남 방문의 해	7면
이색박물관을 찾아	8면
문화달력	11면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12면

충남 최대 스마트팜 현대·KT ‘동참’

글로벌홀티콤플렉스 협약
우듬지팜 등 기업들도 참여
투자유치·기반 조성 협력

충남도가 서산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에 추진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에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동참한다.

도는 4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서산시, 현대건설, 케이티(KT), 케이티(KT)엔지니어링, 에이앤오제일차, 우듬지팜, 그린플러스 등과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각 기관·기업은 전국 최고·최대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단지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에 대한 원활한 투자 유치와 성공적인 기반시설 조성,

운영·활용 등 직·간접적인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도와 서산시는 출자에 필요한 절차 이행,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부지 조성과 추진에 협력하고, 케이티(KT)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통합 관제 플랫폼과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CT) 인프라 구축에 참여한다.

케이티(KT)엔지니어링은 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 및 책임 준공에 참여기로 했다.

각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컨소시엄은 ▲자금 출자, 신규 펀드 조성, 자산 운용 등 금융 관리 ▲콘텐츠 발굴, 계획 수립, 기반 확충, 설계 시공,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개발 ▲온실 신축·운영, 청년 창업

농 육성 등 스마트팜 조성 ▲융복합단지 조성 등을 협력한다.

서산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50만 8200㎡(15만 4000평)로 전국 최대 규모다.

투입 사업비는 3300억 원으로, 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유지하고, 자체 출자금에 민간 투자를 더해 조달할 계획이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집적단지와 융복합단지로 나뉜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올해 말까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스마트팜 착공을 거쳐 2025년 스마트팜 부분 준공 및 시범 운영을 한 뒤, 2026년에는 전체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과 041-635-4041

건양대·순천향대 글로벌대 예비지정

“최종 지정 위해 총력 대응”

충남도는 교육부 주관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건양대·순천향대가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건양대는 지역 특성에 맞춘 국방산업을 특화하여 K-국방 전력지원산업 인력양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유도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순천향대는 작년 예비지정 지위를 인정받았다.

도는 글로벌대학 사업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예비지정 신청 전부터 도내 대학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해왔다.

예비지정 대학은 오는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혁신기획서에 담은 과제를 구체화 하는

실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7월 중 글로벌대학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벌대학은 대학-지역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아갈 대학을 집중 지원·육성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추진되는 사업이다.

본지정 대상은 비수도권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으로, 지난해 10개 대학에 이어 올해 10개 대학을 지정하고,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벌대학에 지정되면 1곳 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고,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041-635-3228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25일 개장

화마 딛고 석달만에 ‘새 출발’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화마의 아픔을 딛고 다시 새 희망을 품는다.

도에 따르면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이 4월 25일 개장,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임시시장은 연면적 4,361㎡의 규모로 막구조에는 수산물동 104개소, 식당 12개소, 농산물동 33개소가 입점한다.

조립식(모듈러)에는 74개 일반동 점포와 컨테이너에는 일반동 3개 점포로 총 226개 점포가 들어선다.

도와 서천군은 이번 재개장에 맞춰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와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행사 등을 마련,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수산물 등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국내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로, 임시시장 내 별도 부스에서 5월 8일까지 펼친다.

최대 20%에 달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은 오는 7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서천사랑상품권 구입 시 10%를 할인해주고,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10%를 캐시백으로, 월 5만 원 이내에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지난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 당시 모습.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수산물·농산물·식당이 있는 1동(사진 오른쪽), 일반·잡화가 있는 2동 모습.

이밖에 도내 소비자단체들은 서천특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응원 캠페인과 장보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경제정책과 041-635-3310

미래 농업 선도 청년 한자리에

청년 농업인 워크숍서 소통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4월 23일 스포라스 리솜에서 ‘충청남도-청년 농업인 함께 뚝딱(農-Run)’을 주제로 ‘충남 우수 청년 농업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딸기 분야 농업기술명인 한민우 씨와 양채류 분야 농업기술명인 김영환 씨가 뚝딱 토크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청년 농업인과 나눴다.

또 1~2기 우수 청년 농부와 1~3기 스마트팜 창농 교육생이 각각 품목별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선후배 농업인 간 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도 농업기술원은 지역 청년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분야별로 선발해 수여하고 있는 우수 청년 농업인 인증패(서)도 제2기 우수 청년 농부 30명과 제1차 충남형 청년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자 30명에게 전달했다.

올해 우수 청년 농부는 ▲고소득 11명 ▲새 도전 8명 ▲행복 11명을 선정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42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150억 규모...5월 21일까지 접수

충남도는 5월 21일까지 한 달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도민참여예산은 예산 운용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민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총 150억 원이며, ▲일반 분야 40억 원 ▲청소년 분야 20억 원 ▲저출산 분야 40억 원 ▲시군 밀착사업 50억 원 등 4개 유형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도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은 소관 부서 검토와 충남도도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 및 온라인 투표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12월에 공개한다.

공모사업 신청은 나이 제한 없이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충남서로이(e)음,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서로이(e)음 누리집(<https://e-um.chungna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 041-635-3608

아이를 낳으면 책임지는 충남

충남형 풀케어 정책

아이돌봄
주거지원
육아환경 개선
사회인식 개선

충남형 풀케어 정책

아이? 맡겨주세요

24시간 365일 완전한 돌봄

0~5세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6~12세
초등돌봄 시간 연장 및 인력 확대 지원

13~18세
공립학원 설치 민간위탁 운영

집? 걱정말아요

충남 풀케어 주거지원

도시리브투게더, 임선·출산가구 특별공급 100% 확대

맞벌이 소득기준 폐지

농촌리브투게더 우선 공급

다자녀가구 기준 3인→2인 조정

방조제 허물고 해수유통...부남호 역간척 추진

연안 담수호 복원 국가 사업화
해수부 연내 타당성 조사 실시
수질개선·해양생태복원 추진

충남도가 추진하는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다.

도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국가차원 부남호 등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은 간척 등 개발로 막힌 물길과 뱃길을 다시 연결해 수질과 갯벌, 기수역 등을 되살리고,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남호의 경우 ▲수질 악화 및 악취 발생 ▲우기 시 담수호 방류로 인한 천수만 오염 및 어장 피해 발생 ▲인근 논 가뭄·염해 피해 발생 등에 따라 도가 생태 복원 대상으로 선정, 사업 추진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부남호 생태 복원 계획은 ▲방조제 구조 변경 ▲해수 유통구 확장 및 통선문 설치 ▲오염 퇴적토 준설 ▲생태하천 조성 ▲해양신도시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단계 투입 사업비는 1134억 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에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 타당성 조사비 5억 원이 반영됐다.

국비 포함에 따라 해수부는 조만간



간척지 조성 당시 모습.



부남호 전경.

부남호 생태복원(1단계)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충남 천수만 부남호 일원
- 사업비 : 1134억 원
- 사업내용 : 부남호 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 수질개선 및 해양생태복원
- 담수역 제방 보강, 해수소통구, 갯벌복원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도는 이에 맞춘 대응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대응 연구용역은 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한 우선 추진 대상 선정 시 부남호를 먼저 반영시키고, 신규 사업대상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충남연구원이 실시한다.

또 ▲국가 타당성 조사 통과 대응 ▲도내 사업 후보지 분류 및 타당성 분석 자료 검토 ▲생태 복원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 ▲체계적·종합적 기수역복원형 갯벌 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등도 연구용역 배경 및 목적이다.

공간적 범위는 서산시, 태안군 일원 부남호를 포함한 충남 서해안 연안·하구 등으로 잡았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기수역복원형 갯벌 복원 대상지 선정 기본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국내외 유형·규모별 갯벌 복원 사례를 찾는다.

이어 복원 가능 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복원 사업 대상지별 최적 기수역복원형 갯벌 복원 방안과 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 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항목별 효과 분석 방안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과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한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국가 사업화를 누차 추진해왔으나, 실제 반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최적의 대상지를 도출하고 타당성까지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해수 유통이 해양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생태 복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안면읍 황도에 대한 연도교 철거 전후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 황도 지역 바지락 생산량은 연도교 철거 전인 2009~2010년 연평균 133톤에서 철거 이후인 2012~2017년 연평균 194톤으로 61톤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태안 지역 바지락 생산량이 1265톤(2009~2011년 연평균)에서 1155톤(2012~2017년 연평균)으로 114톤 감소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황도 주민에 대한 탐문 조사에서는 연도교 인근에서 자취를 감췄던 감성돔과 농어 등이 다시 낚이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

/해양정책과 041-635-4772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올해 첫 포착

시민 모니터링서 4개체 확인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속 추진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에 점박이물범이 다시 돌아왔다.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점박이물범을 육지에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도는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가 4월 12일 가로림만에서 진행한 올해 첫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점박이물범 4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확인한 점박이물범은 4개체로, 모래톱 위에 올라 쉬거나 해염을 치는 모습 등을 보였다.

점박이물범은 식육목 물범과에 속하

는 포유류로, 천연기념물 제33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양보호생물 등으로 지정돼 있다.

가로림만 점박이물범은 국립수산물 학원 고래연구소 조사에서 최대 12개체(2021년)까지 확인된 바 있다.

도는 가로림만이 얕은 수심에 모래톱이 잘 형성돼 있고, 먹이가 풍부해 점박이물범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점박이물범 시민 모니터링은 선박과 드론을 활용, 연간 7회에 걸쳐 진행한다.

도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점박이물범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현재



점박이물범 모습.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도는 세계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양정책과 041-635-2765

가로림만-와덴해 교류·협력 '물꼬'

와덴해 공동사무국 가로림만 방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꿈을 키우고 있는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갯벌을 가진 와덴해와 교류·협력 물꼬를 텃다.

도는 4월 22일 솔레다드 루나 와덴해 공동사무국 세계유산담당관, 아나 슈젠신스키 국제와덴해학교 프로그램담당관, 데이비드 에스위즈 호주 윈즐랜드 섬금류학회 의장 등이 서산·태안 가로림만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와덴해는 독일·네덜란드·덴마크 등 유럽 3국에 인접한 해역으로, 갯벌적은 충남 면적(8247.21㎢)보다 약간 작은 7500㎢에 달한다.

2009년에는 갯벌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날 솔레다드 루나 담당관 등은 서산 별말항을 찾아 가로림만을 살펴보고, 서산시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도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 과정을 설명한 뒤,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조사연구 교류·협력 방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시설물 및 프로그램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집중하면서 와덴해 공동사무국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정책과 041-635-2765

회사? 눈치보지 말아요
공공기관 육아환경 개선, 사회 인식 개선

- 0~2세 자녀대상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 세자녀 이상 공무원 특별승진 범위 확대
- 근무성적평점 가점 부여
- 9~12세 돌봄시간 1일 2시간 추가 제공
- 육아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등급 부여

힘을합쳐 충청남도민들의 힘

사회 인식? 우리가 바꿔요!

- 출산·육아에 눈치보는 '직장분위기 바꾸기 캠페인' 추진
- 아이키움 배려 우수중소기업 인증 및 최대 1억원 육아지원금 지원
- 주요 행사 시 유아동반가족 입장 우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힘을합쳐 충청남도민들의 힘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빈틈없이 충청남도가 풀게어 해드립니다.

힘을합쳐 충청남도민들의 힘

보령신항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 지원 항만’ 건설

도·보령시·한화 건설부문 협약
2028년까지 2000억 원 투입
관련기업 유치여건 조성 기대

충남도와 보령시가 조성 추진 중인 보령신항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 지원 항만이 들어선다.

도는 4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보령시, 한화 건설부문과 보령신항 해상풍력 지원 항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신항 해상풍력 지원 항만은 한화 건설부문에서 올해부터 총 2000억 원을 투자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건립 규모는 안벽 414m(2선석), 배후부지 30만㎡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해상풍력 지원 항만은 목포신항(안벽 240m·배후부지 9만 3000㎡)이 유일하다.

보령신항 지원 항만에는 서해안권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세울 해상풍력발전기의 날개 및 엔진 조립 시설, 부자재 보관 시설, 계통연결 시설 등

이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계획된 서해안권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보령 1.96GW(6조 원) ▲태안 1.0GW(14조 9000억 원) ▲보령·녹도 320MW(2조 원) ▲인천권 2.5GW ▲전북 2.5GW 등 총 8.28GW에 달한다.

도는 보령신항 해상풍력 지원 항만이 본격 가동하면 관련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고, 해상풍력 설치와 유지·관리, 관련 부품 생산 등을 통해 5년 간 1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상풍력 지원 항만 개발·운영 단계에서 3300여 명, 해상풍력 사업에서 4200여 명 등 총 75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보령신항 해상풍력 지원 항만 개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령시는 해상풍력 지원 항만 조성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협력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보령신항 해상풍력 지원 항만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적극 투입하고,



보령신항 조감도.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오는 2026년까지 타당성 조사와 항만개발사업 허가를 받고, 2027년부터 2년 간 안벽과 배후단

지를 조성하며, 2029년 이후에는 항만을 본격 가동한다.

/해운항만과 041-635-4821

도정게시판

“내 고장 국가유산 보호해요”

충남도는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내 고장 국가유산 가꾸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

민·관이 협력해 지역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 현장 봉사활동, 교육, 네트워킹 형성 등 시군별 자율활동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활동주기는 4월 넷째주부터 5월 첫째주까지이며, 도는 문화유산지킴이 거점 지역협의회인 ‘보령 문화재지킴이 봉사단’을 주축으로 행사를 추진한다.

주요 활동은 국가유산지킴이, 협약기관, 민간단체는 물론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초·중·고등학생 및 가족단위의 참가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위주의 청소 등 정화활동, 주변 시설물 정비 형태로 구성했다.

활동내용에 따라 봉사활동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문화유산과 041-635-2453

서산에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

충남도내 처음으로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이 문을 열었다.

도는 서산시 성연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도종닭에 대해 소규모 도계장 운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모 도계장 시설은 2.3kg 이상 닭을 연간 30만 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 대해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해 허가했다.

해당 시설은 5톤 트럭을 활용한 차량형 이동식 도계장으로 방혈기·탕적기·탈모기 등 도계 관련 장비 35종 42대를 탑재했으며, 하루에 500수 도축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도축이 허가된 축종은 닭과 꿩이며, 해당 축종 도축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도종닭에 문의하면 된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8



빠르미2·빠르미향 모내기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4월 23일 보령시 청소면 일원에서 청년농업법인 ‘보령우리밀영농조합’과 빠르미2·빠르미향 등 ‘2세대 빠르미’에 대한 모내기를 실시했다.(사진)

빠르미 업그레이드 품종인 빠르미2와 빠르미향은 2018년 개발한 빠르미와 수확 시기(모내기 후 80여일 안팎)는 비슷하지만, 도열병에 강하고 아밀로스 함량이 11% 가량으로 낮아 밥이 찰지고, 맛이 우수하다.

또 빠르미와 마찬가지로 재배 기간이 짧아 농업용수 사용량을 53%, 질소비료 사용량은 1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인 메탄 발생량도 47%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050



도 소재 ‘충남의 위인들’ 초상화 특별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8월 31일까지 충남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충남의 위인들, 초상화로 돌아오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2023년 복제한 일본 덴리대학(天理大學) 부속도서관 소장 ‘조선역대인물초상화첩’ 중 충남 관련 인물 37명의 초상화 46점을 선보인다. 화첩은 19세기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041-840-5071

힘센충남
대한민국의힘

2024
충남 사회조사

도민에게 힘이 되는 충청남도를 만듭니다

조사목적

충남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기간

인터넷 조사 2024년 5월 7일 ~ 5월 20일 방문면접조사 2024년 5월 7일 ~ 5월 27일

조사대상

15,000 표본가구 (만15세 이상)

응답혜택

소정의 답례품 증정

조사내용

총 11개 분야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여가와 문화, 사회통합, 도정특성 등)

※ 통계법 제 18조에 근거한 조사로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 관

충청남도

조 사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설계/분석

GLOBAL RESEARCH

충남도정

발행인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ou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52개국 한인 최고경영자 충남 모였다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폐막
수출상담서 1248만 달러 계약

충남도는 전세계 52개국 99개 도시에서 활동 중인 한인 최고경영자(CEO)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4월 18일 예산군 스포러스 리솜에서 (사)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회는 ▲충남 홍보관 ▲지역상품 홍보·판매전 ▲투자유치설명회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16-17일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전세계 34개국 67개 도시에서 바이어 186명이 방문해 충남의 우수한 지역상품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도는 총 상담건수 531건, 상담액 3642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업무협약



수출상담 모습.

(MOU) 28건 및 당초 목표액 1000만 달러 계약을 초과하는 1248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지역상품 홍보·판매전에서는 금산 한약재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주)경동한방 제약’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인 기업 ‘브리디아’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6건, 1년간 631만 달러 계약 및 총상담 건수 156건, 총상담액 314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도와 세계한인무역협회, 7개 기업지원기관(상공회의소 3곳, 충남중소기업연합회, 일자리경제진흥원 등)간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넓히기 위한 지원협약도 체결했다.

월드옥타는 재외동포 기업인 단체로 67개국·146개 지회에 CEO 7000여 명과 차세대 경제인 2만 3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매년 고국에서 세계대표자대회를 개최 중이다.

/일자리기업지원과 041-635-3412



충남소방, 정신건강 힐링 걷기

충남도 소방본부는 4월 17일 예산 예당저수지에서 119종합상황실 소속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힐링 걷기(Healing Walk)’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119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참여해 예당저수지 ‘느린 호수길’ 등을 걸었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충남소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119종합상황실 직원의 정신건강과 사기는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건강한 119신고 문화 조성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충남도 소방본부 041-635-5660

내포 농생명 협력단지 2027년 준공 추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충남도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최종 통과한데 이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지정계획 반영으로 산업단지 물량을 확정할 수 있게 됐으며, 도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예산군 삼교읍 일원에 조성되는 내포 농생명 협력단지에는 스마트팜, 산업단지, 연구지원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으

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협력단지 내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보관까지 단지 내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최초 농생명 분야 협력단지가 구축된다.

/산업입지과 041-635-3446

국방벤처기업 13곳 신규 지원

시제품 제작·마케팅 등

충남도 남부출장소는 4월 16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방산 분야 13개 중소벤처기업과 충남국방벤처센터 신규 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논산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 운영하는 충남국방벤처센터는

2019년 설립 이후 총 56개 기업과 지원 협약을 맺고 ▲국방과제 발굴 ▲국방기술 개발 ▲교육 및 판로 확보 등 방산 분야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지원 기업은 총 69개사로 늘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선진과 위테크, 드론테크, 정진에어로스페이

스, 세한에스디에이 이엔지(세한SDA ENG), 동진포리텍, 캐스, 에스에이씨, 프로메카, 퓨처테크, 코펜엔지니어링, 유피씨, 선진특장, 한울드론으로 우주항공·방산 부품 분야 기업 등 총 13개 사다.

이번 협약으로 13개 기업은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개발품에 대한 사업화, 부품 국산화, 경영 및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국방협력과 041-635-7726

명상·산책으로 마음건강 지키기

청년 자살 예방 조기 검진
심리 치유·숲 힐링캠프 등

충남도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내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 자살 예방 조기 검진 및 심리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청년 대상 자살 예방 조기 검진을 진행하고 고위험군 발굴, 심리 지원 및 자원 연계 등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층 자살 예방 지지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충남정신건강관리망(SIMS)을 통한 정신건강 검진 ▲고위험군 상담 및 자원 연계(치료비 지원 등) ▲청년 대상 치유(힐링) 프로그램 지원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교육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캠페인 홍보 등이다.

지난해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청

년 364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추진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1인 가구 및 청년 대상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도는 올해 도내 대학 30곳,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울 및 자살 정신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 지원,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예산치유의 숲과 연계한 ‘마음숲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청운대, 혜전대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혜전대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검진(우울, 자살)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심잉볼 및 다도 명상 ▲산가지 채조 및 마음숲 산책 등으로 구성했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4

스타벅스·더베이크 재능기부 카페 개점

노인 일자리 민관 협력

충남도는 4월 23일 예산에 있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에 스타벅스 코리아, 더베이크와 함께 ‘카페(Cafe) 별무리’를 개점했다.

카페 별무리는 도가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카페 내부 공사비와 인건비를 지원했으며, 예산군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를 연계 지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인테리어 등 내

부 시설을, 더베이크는 제빵 설비와 바리스타·제빵 기술을 각각 재능기부 형태로 지원했다.

도는 카페 별무리가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스타벅스 코리아, 더베이크와 함께한 사회 공헌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 노인은 물론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상생협력 모형(모델)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로보훈과 041-635-4215

그라픽 | 이용

스마트농업 수도 충남

한눈에 살펴보는 스마트팜 창업

③ 충남형 스마트농업 육성의 특징점

목표

농업·농촌에 진심인 청년농 **충남도에 3,000명 유치**
5,000만 원 이상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경영체제 구축**

모토

농업 의지가 확고한 청년농업인이 교육 이수 등 **기술력**만 갖추고 있으면 **젊음**을 신용(금융)으로 충남도가 책임지고 지원

실행 원칙

공공지원+자립지원의 **투트랙 실행 6원칙**

공공지원
실습+소득

1 경영실습
2 창업준비
3 창업자립

자립지원
경영+금융

1 경영설계
2 시공지원
3 금융지원

5000만원 이상 소득창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방식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토털 솔루션 지원**

시공문의

· 보조금 및 용자 지원
· 경영인정 컨설팅 지원

스마트팜 조성

청년 자립경영 구축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6월 22일 개장

꽃지 등 26곳은 7월 6일부터 운영
편의시설 확충·바가지 요금 근절

태안지역 해수욕장이 6월말~7월초 일제히 개장한다. 태안에는 서해안 32개 해수욕장 중 27곳이 몰려있다.

태안군은 최근 해수욕장협의회를 열고 관내 해수욕장 개장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태안지역 해수욕장 중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은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이다. 만리포해수욕장은 6월 22일 개장해 8월 18일까지 58일간 운영된다.

꽃지·몽산포 등 나머지 26개 해수욕장은 7월 6일 동시 개장한다. 운영기간은 8월 18일까지 44일간이다.

개장기간 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9~15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에도 개장한다.

군은 개장기간 해수욕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24시간 상황 유지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선발된 안전관리요원 150명을 포함해 하루 평균 301명의 인력과 75대의 구조장비를 해수욕장에 투입한다.

군은 개장 전까지 각 해수욕장별 음수대와 세족대,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피서철 태안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년보다 9% 늘어난 160만 명에 이르렀고, 올해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피서객 만족도 높이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피서철 태안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년보다 9% 늘어난 160만 명에 이르렀고, 올해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피서객 만족도 높이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전경.

“유채꽃으로 물든 삼교호 자전거길 놀러 오세요”

직영터미널 운영 편리하게 이용

당진시의 대표관광지인 삼교호관광지와 연결된 삼교호자전거길이 노란 유채꽃으로 물들었다.

삼교호자전거길은 한편엔 넓은 호수가 반대편으로는 드넓은 평야가 펼쳐 있어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또한 자전거 쉽터와 이정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삼교호관광지 내에는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당진시 직영 자전거터미



삼교호 자전거길.

널이 있어 관광객도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터미널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월·화 휴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성인용, 2인용, 아동용 등 총 75대의 자전거와 안전장비를 빌려주고 있으며, 최초 1시간에 1000원(이후 30분마다 500원씩 추가)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자전거 대여할 수 있다.

삼교호관광지는 지난해 ‘대한민국밤밤곡곡100’에 선정되고 충남 네비게이션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솔피성지·신리성지·합덕제와 함께 들리면 더욱 좋다.

/당진시

취향 따라 흥성 여행 ‘호응’

레트로·유기농·인생샷 투어 등
‘원포인트 상품’ 5개 코스 개발

흥성군이 최근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콘셉트의 ‘원포인트 여행상품’을 선보여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여행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원포인트 여행상품은 ▲광천시장 레트로 여행 ▲흥성 캐슬 투어 ▲62(유기농)투어 ▲흥성문학투어 ▲인생샷 투어 등 총 5

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와 문화 체험을 원한다면 흥주읍성과 결성읍성 등 천주교 순례길을 탐방하는 ‘캐슬 투어’를, 유기농 농촌 체험을 원한다면 ‘유기농 투어’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흥성 문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흥성문학투어’와 흥성 곳곳의 명소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인생샷 투어’도 인기를 끌고 있다.

흥성 원포인트 여행상품은 풍경있는여행 사이트에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된다.

/흥성군

모바일 티켓 한 장으로 충남여행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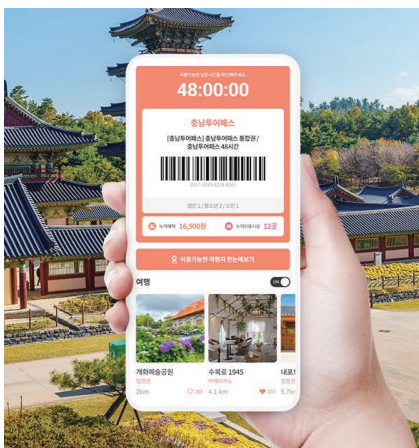
②충남 투어패스 통합권 출시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이 도내 10개 시군의 관광지와 박물관, 카페, 유료 체험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여행 상품권인 ‘충남 투어패스 통합권’〈사진〉을 출시했다.

2025~2026 ‘충남방문의 해’를 맞아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충남투어패스 통합권은 하루, 이틀 충남에 있는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등 80여 곳(4월 말 현재) 가맹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권이다.

‘24시간 이용권’(1만 2900원)과 ‘48시간 이용권’(1만 5900원)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티몬, 투어패스몰 등 12개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패스권을 모바일 등으로 구매한 뒤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에 충남투어패스에 가입된 관광지와 박물관, 전시관, 체험시설, 카페 등을 방문하면 가맹점별로 제시된



무료입장 및 체험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시간 이용권으로 천안 여행계획을 세웠다면 천안 상록리조트 상록랜드에서는 5개 놀이기구를 무료(1만 4000원 상당)로 이용할 수 있고 천안 빵만을 맛집인 두주루 빵돌가 마을에서 체험을 하거나 빵을 무료로 맛볼 수 있다. 리각미술관(입장료 성인기준 3000원), 아름다운정원 화수목(8000원), 아라리오갤러리(3000원) 등도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5곳만 들러도 4만~5만 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천안지역 가맹점은 15곳(4월 말 현재)에 이른다.

보령에서는 개화예술공원, 바둑이네동물원, 무창포타워 무료입장은

물론 개화예술공원에 있는 리리스카페나 대천 바다가 보이는 보령수협운영의 바다들루프탑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청양에서는 고운식물원,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청양효소치유의숲을 비롯해 카페 등 모두 30여 곳의 제휴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1박 2일간 여행할 수 있는 48시간 이용권을 구입할 경우 짜임새 있게 여행코스를 구상하면 시군 경계 없이 거리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반값’으로 충남 곳곳을 여행할 수 있다.

제휴시설에는 당진 삼교호합상공원(1만원), 예산 내포보부상촌(1만 1000원)도 가입돼 있다.

충남투어패스 통합권 출시를 기념해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특별 할인행사도 열린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1만 2900원짜리 24시간권을 23% 할인된 9900원에, 1만 5900원인 48시간권은 19% 할인된 1만 2900원에 선착순 1000매를 판매한다. 또 제휴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충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4 충남투어패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논

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등 10개 시군이며 다음 달부터 태안군과 홍성군도 참여한다.

/관광진흥과 041-635-3891

/충남문화관광재단 041-630-2972



충남관광캐릭터 워디가디

투어패스 가맹점 지도



이색 박물관을 찾아

② 예산 한국토종씨앗박물관



1993년도 수집한 이천지역 토종.

▶ 강희진 관장이 토종벼 재배 및 수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현진

감참외 등 사라져가는 옛씨앗 1500여종 선봬

맛있고 건강한 한 끼를 즐기는 이들이 늘면서 식문화도 바뀌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식물’ 근간에는 씨앗이 있다. 과거 토종씨앗이 대대로 내려와 현재 밥상에 오른 것이다.

평생 농사를 짓던 농부가 사라져가는 토종씨앗을 후대까지 전달하려고 박물관을 열었다.

충남 예산군 대술면에 있는 한국토종씨앗박물관은 토종씨앗을 전국에서 모아 전시·보관하며 개체 유지에 앞장서고 있다.

2015년 5월 17일 개관했으며 전시실과 안완식 박사 토종씨앗 기증관, 근대 농기구·유물 발굴 등 체험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실에는 팥, 녹두, 메주콩, 벼, 보리, 동부 등 토종씨앗 1500여종을 선보인다.

기증관은 씨앗 박사인 안완식 박사가 1985~2017년 수집·확보한 작물 유전자원들이 전시 중이다.

토종씨앗은 고대부터 심어져 토양과 지형에 맞게 적응되며 종류와 모양, 맛이 다양하게 변했다. 씨앗은 식량의 역사를 쌓으면서 아기의 장수를 기원하는 돌피, 액을 면하고 복을 비는 오방낭자 등 생활 속에서도 쓰였다.

강희진 관장은 “평생 농사만 짓다 은퇴 시기 박물관투어를 하면서 토종씨앗박물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때마침 아내가 슬로푸드운동을 하며 씨앗을 모으고 있었다”며 “민간 차원에서 인류문화의 근원인 씨앗의 가치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박물관을 개관하기로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토종씨앗을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씨앗엔 조상들의 삶이 담겨있고 각각의 서사가 있다

이어 강 관장은 “박물관 설립을 결정하고 첫 수집활동으로 예산 백제유에서 토종을 심는 ‘씨토쟁이’ 형님을 만났다. 쥐논이콩을 한 움큼 보여 주면서 보물이라고 하더라. 백두산 답사에서 만난 최씨 일가 대파씨 이야기도 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희진 관장이 토종씨앗 종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한국토종씨앗박물관 전경.



일상에서 쓰인 씨앗. 돌북.



농기구 전시관.

감참외 씨앗 수집이야기도 재밌다. 소설 ‘봄봄’에도 나오는 감참외는 참외 중 맛이 으뜸인데 보존이 어렵다. 6·25 피난 당시 부모님이 가져온 북한 토종 감참외 씨를 박물관에서 보관해달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수집한 감참외 씨앗은 발아기에 넣어 발아시켜 후계 종을 만들어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

현재 한국토종씨앗박물관은 씨앗관찰, 떡 만들기 등 씨앗 활용, 콩나물 키트, 미각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강 관장은 “토종씨앗은 먹거리 개체 유지를 위해 품종 다양화가 중요하다”며 “GMO(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토종씨앗을 지켜야 한다. 앞으로도 수집활동과 귀한씨앗을 보존하고 후대까지 전달하기 위해 나눔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 오시는 길



- 주소 : 예산군 대술면 시산서길 64-9
- 관람료 : 입장료 3000원
- 개관일 : 화~일 오전 9시~오후 5시
- 전시품 : 토종씨앗 1500여 종
- 관람 안내 : ☎041-333-5613



토종쌀 미각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토종씨앗박물관 토종벼 키우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토종씨앗박물관 토종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토종씨앗박물관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충청남도는 고령은퇴 농업인들의 농지이양을 지원합니다

고령은퇴농업인의
보다 나은 노후를
보장합니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은퇴농지를
제공합니다!



2024년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규모
600ha



총사업비
30억 원 (도비12^{40%}, 시군비18^{60%})



지원대상
65세 ~ 84세 이하 고령은퇴농업인
※정부「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참여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



지원단가
1ha기준 / 매도 500만 원, 임대 350만 원

구분	1ha기준, 매도시 지원액 (만 원)	1ha기준, 임대시 지원액 (만 원)
총 계	1,100	830
정 부	600	480
충청남도	500	350

참여자격 · 참여방법



신청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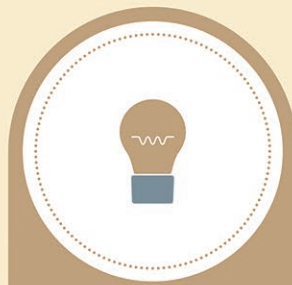
2024년 중
※예산 범위 내



참여자격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참여자

경작 농지면적
1,000㎡ 미만으로
완전 은퇴한
65세 ~ 84세 이하
고령농업인



참여방법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신청
(농어촌공사 각지사)

시 · 군별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확정자별
사전안내

「충남형 고령은퇴
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 추가 신청
(시군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지사별 연락처

천안 | 041-539-7092

당진 | 041-351-9157

홍성 | 041-630-5719

공주 | 041-850-6433

금산 | 044-860-3310

예산 | 041-330-3533

보령 | 041-930-7843

부여 | 041-837-9529

서산 · 태안 | 041-660-8534

아산 | 041-539-7133

서천 | 041-950-7707

논산 | 041-730-2127

청양 | 041-940-1730

국민연금
100문 100답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요?

- '22.1.1.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 변동가능)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입학 전 챙겨야 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백신 종류	4세	6세	11세	12세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DTaP 5차			
	Tdap/Td			Tdap/Td 6차	
폴리오	IPV	IPV 4차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MMR 2차			
일본뇌염	IJEV(불활성화 백신)		IJEV 4차		IJEV 5차
	LJEV(약독화 생백신)	LJEV 2차 * 접종 권장연령(생후 24~35개월)에 접종하지 못했어도 빠른 시일 내 접종 권장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감염증	HPV			HPV 1차~2차	



**예비 초등학생
백신 4종 추가접종**

**예비 중학생
백신 3종 추가접종**

| 치매예방 두뇌훈련 퀴즈

다음은 백 영감님의 보안카드입니다.

보안카드의 번호를 보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실버은행 보안카드

No. 123456

1	10	50	8	11	60	15	35	50	22	33	72	29	43	73
2	20	80	9	02	52	16	12	80	23	04	84	30	25	92
3	40	91	10	21	70	17	03	91	24	17	54	31	05	76
4	31	93	11	30	81	18	32	93	25	13	94	32	14	55
5	15	86	12	22	53	19	16	86	26	24	56	33	74	85
6	87	95	13	41	63	20	23	95	27	06	77	34	34	45
7	01	75	14	64	82	21	42	75	28	26	44	35	65	78

[보기]

$$8\text{번 앞 } 2\text{자리} + 26\text{번 뒤 } 2\text{자리} = 11 + 56 = 67$$

11번 앞 2자리 + 32번 뒷 2자리 =

7번 앞 2자리 + 12번 뒷 2자리 =

14번 앞 2자리 + 35번 뒷 2자리 =

출처 / 한국치매예방협회 위드실버

$$14\text{번 공 2타리} + 35\text{번 실 2타리} = 64 + 78 = 142$$

$$7\text{번 양 2자리} + 12\text{번 음 2자리} = 01+53=54$$

$$30+5+05 = 12\text{월} \text{ 월} + 32\text{일} \text{ 일} + 11\text{월} \text{ 월}$$

$$\boxed{11 + 56 = 67} \quad \text{답 : } 67$$

충남도립

신문 무료 구독신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일자리 정보

※문의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041-404-1421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천안	드림피에씨(주)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2명	041-582-6652	연 3,200만원
천안	천수테이프(주)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1명	041-522-2627	연 2,800만원
천안	(주)알티지동화	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5명	041-541-5580	연 3,700만원
천안	(주)다미원	창고 관리원	1명	041-555-6061	연 2,450만원
아산	(주)가람테크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2명	041-534-6991	연 3,000만원
아산	(주)태양테크	제조 단순 종사원	2명	041-542-3442	연 3,300만원
아산	(주)하이코리아	배송·납품 운전원	1명	041-531-1900	연 3,200만원
아산	(주)에스와이씨	지게차 운전원	2명	041-911-4925	연 3,700만원
당진	(주)아성기업	배송·납품 운전원	2명	041-356-0479	월 250만원
당진	(주)피비엔텍	건설·채굴 단순 종사원	2명	041-362-5406	월 450만원
당진	신천기공	용접원	2명	041-358-7046	연 4,500만원
당진	유한회사 성진에스엔씨	생산·품질 사무원 및관리원	2명	041-552-7737	월 300만원
서산	기산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 기술자	2명	041-681-5451	연 3,000만원
서산	(주)정인이앤씨	내선 전기공	2명	041-667-5448	연 4,000만원
서산	(주)제이엔제이	제조 단순 종사원	2명	041-3584-4510	월 300만원
서산	(주)오도엠팩토리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	041-666-0009	연 3,000만원
공주	농업회사법인(주)밤마을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1명	041-858-3489	월 220만원
공주	(주)휴먼바이오	재무 사무원	1명	070-8882-9206	연 2,800만원
공주	(주)고려소방산업	소방시설·설비 시공 기술자	2명	041-854-9119	연 3,000만원
공주	국립공주대학교	공공행정 사무원	2명	041-850-8846	연 2,715만원
논산	드롭탑논산내동점	음료 조리사	1명	010-4731-4491	월 245만원
논산	서일공영(주)	일반 영업원	1명	041-733-3101	월 240만원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논산	대형환경(주)	건설·채굴 단순 종사원	4명	041-732-0620	월 220만원
논산	성모의 마을	사회복지사	1명	041-732-2085	연 4,000만원
보령	충청남도 도립요양원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	041-933-3003	월 230만원
보령	대일전선(주)	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2명	041-932-9030	연 3,400만원
보령	(주)덕산지에스보령지점	공장 전기관리원	2명	041-933-0487	연 4,000만원
보령	(주)이노텍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2명	041-931-9679	연 3,600만원
계룡	신세기전기(주)	내선 전기공	3명	042-841-2841	월 300만원
계룡	주식회사 명민정권설	토목공학 기술자	1명	042-472-9244	월 220만원
홍성	(주)두현이엔씨	하수·폐수 처리장치 조작원	1명	041-544-6250	연 3,100만원
홍성	풀무산융협동조합	기타사무원	1명	041-633-6221	연 3,000만원
예산	(주)케이에프엠	제조 단순 종사원	4명	041-338-1201	연 2,800만원
예산	(주)명배메탈	생산·품질 사무원	1명	041-337-6822	연 3,000만원
태안	한국인공지능융합산업협회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	041-675-0871	연 3,,000만원
태안	서산수산업협동조합	기타 판매 단순 종사원	4명	041-671-8806	연 3,700만원
서천	(주)코츠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명	041-956-1454	월 285만원
서천	서창산업(주)서천휴게소	주방 보조원	1명	041-952-9700	월 271만원
부여	농업회사법인두일TMRI(주)	제조 단순 종사원	1명	041-835-0770	월 250만원
부여	금강엔지니어링(주)	하수·폐수 처리장치조작원	1명	010-5789-5176	연 3,300만원
금산	(주)메딕프로헬스케어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명	041-751-9949	월 250만원
금산	(주)동남사	포장(패키지)디자이너	1명	041-753-7141	월 280만원
청양	알찬재래김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	041-943-4488	월 250만원
청양	삼우컴퍼니(주)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5명	010-2529-0414	월 230만원



자료제공/충남문화관광재단

4월 문화 달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

2024 보령 문화유산야행

기간: 2024-05-17 ~ 05-19
장소: 보령 충청수영성 일원
시간: 17:00
비용: 무료
문의: 041-930-0891

뮤지컬 <고양이 해결사 캬냥>

기간: 2024-05-18 ~ 05-19
장소: 천안어린이꿈누리대공연장
시간: 11:00
비용: 10000원
대상: 36개월 이상 아동
문의: 041-522-7199



NEW 뮤지컬 번개맨 전설의 시작

기간: 2024-05-25 ~ 05-26
장소: 천안시 성환문화회관
시간: 11:00
비용: 1층 66,000원 / 2층 44,000원
문의: 041-521-3745

24

기획공연 뮤지컬 <왓이프>

기간: 2024-04-24 ~ 04-27
장소: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
시간: 10:00
비용: 전석 10,000원
(할인 I 8,000원, II 5,000원)
대상: 초등학교이상 관람가
문의: 041-661-8023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기간: 2024-04-24 ~ 04-28
장소: 이순신종합운동장



26



알라딘과 요술램프

기간: 2024-04-26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시간: 10:10
비용: 20,000원
대상: 24개월 이상 관람가능
문의: 041-350-2911

27

▶2024 부여 세도 방울토마토 & 유채꽃축제 ▶상해의거 92주년 제51회 윤봉길 평화 축제

기간: 2024-04-27 ~ 04-29
장소: 예산군 덕산면 충의사 일원
비용: 무료
문의: 041-338-95145



미술사 최형배의 오리지널 과학미술콘서트 시즌1

기간: 2024-04-27 ~ 4-28
장소: 천안시성환문화회관 대공연장
시간: 11:00
대상: 24개월 이상
문의: 041-521-3745

로비에서 즐기는 콘서트 <산물이 흐르는 박물관>

기간: 2024-04-27
장소: 국립공주박물관 로비
시간: 14:00
비용: 무료
문의: 041-850-6300



28



에우테르페 앙상을 정기연주회 <오페라, 뮤지컬 오케스트라를 만나다>

기간: 2024-04-28
장소: 서산시문화회관
시간: 19:00
비용: 무료
대상: 7세 이상 아동 ~ 성인
문의: 041-661-8023

2

가족음악회 프랑스 메츠 브라스 앙상블

기간: 2024-05-02
장소: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시간: 19:30
비용: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문의: 041-840-2204



모짜르트 <코지 판 투테>

기간: 2024-05-02
장소: 천안시청 봉서홀
시간: 11:00
비용: 일반석 10,000원
대상: 8세 이상
문의: 041-521-5156



3

2024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기간: 2024-05-03 ~ 05-06
장소: 석장리 박물관, 상왕동 일원
시간: 10:00
비용: 무료
문의: 041-840-8090 / 1899-0088



4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날 특집 뮤지컬 <종이아빠>

기간: 2024-05-04 ~ 05-05
장소: 국립공주박물관
시간: 14:00
비용: 무료
문의: 041-850-6300



홍성 역사인물축제

기간: 2024-05-04 ~ 05-05
장소: 홍주읍성 일원
비용: 무료
문의: 041-634-8706



6

2024아트매직쇼

기간: 2024-05-06
장소: 서산문화회관 대공연장
시간: 11:00
비용: 전석 20,000원
대상: 24개월 이상 관람가능



미리 다녀온 부여 유채꽃 단지

같이 안보이는 약 15ha의 유채꽃밭에서 개최되는 방울토마토&유채꽃축제는 부여군 세도면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됐다. 부여 세도면의 특산품인 방울토마토를 알리는 특색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올해 축제는 4월 27일(토) ~ 28일(일) 2일간 개최된다.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판매, 시식 많은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유채꽃밭 사이사이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어 사진찍기에도 좋다.

부여 세도면의 금강둔치의 유채꽃단지에서 봄기운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도민리포터 임데라스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여 세도 방울토마토 & 유채꽃축제

기간: 2024-04-27 ~ 04-28
장소: 부여군 세도면 금강황산대교 일원
비용: 무료
문의: 041-830-6723

사서들의 서재



아몬드/손원평/다즐링/2023

전 세계 30개국 출간, 국내 100만부 판매 베스트셀러, 아시아권 최초, 일본 서점대상 1위 수상 등 이 책 앞에는 수많은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읽고 찾는 책이자 연극으로도 무대에 오른 '슈퍼스타' 같은 책이다. 그럼에도 이 책을 제시하는 것은 그간의 절판기간을 거쳐 단편 외전을 함께 수록하여 재출간되어 책을 읽어본 독자에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재미를, 아직 책을 접하지 않은 독자에게는 상상력과 읽는 재미를 배가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인공 16세 소년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도 표현하지도 못한 다. 편도체가 선천적으로 작은 '알렉시티미아', 즉 '감정표현불능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윤재를 엄마와 할머니는 사랑으로 품으며 그를 평범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했지만 16세가 되던 생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극적인 사건으로 윤재는 엄마와 할머니를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게 된다.

홀로 학교에 진학한 윤재는 감정을 못느끼는 그의 행동으로 인해 괴물로 불리게 되고, 그곳에서 또다른 괴물로 낙인찍힌 거친 소년 곤이를 만나게 된다. 특별한 서로를 만나 서로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둘은 가까워지고 곤이는 윤재에게 공감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픔', '불편'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한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공감을 불러올 수 없는 어둠일 뿐이다. 이후 윤재는 또다른 친구 도라를 만나게 되는데 맑은 모습의 도라

감정을 못느끼는 소년의 공감과 위로

는 윤재에게 그녀를 생각하면 자꾸 부끄럽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도라의 마음에 공감하며 미세한 감정변화를 겪게 되는 윤재가 후에 벌이는 일련의 과정들은 그가 감정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는 성장스토리라고 볼 수 있다. 곤이의 어둠으로는 일으키지 못한 윤재의 공감이 도라의 사랑으로 생겨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답을 제시한 듯하다. 결국 인간은 사랑이 바탕이 된 진정한 공감이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말이다.

이 모든 과정을 소설 속 윤재는 답답한 어조로 말하지만, 독자는 윤재가 느껴야 할 감정의 무게와 힘겨운 성장통을 대신 느끼며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공감'과 '사랑'이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기존 이야기와 단편 외전까지 읽고 나면 소통의 부재로 어느 때보다 공감이 필요한 요즘 독자에게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인지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져줄 것이다.

/김민지 사서(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스마트팜 유기농에 젊음을 걸다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보령 천북 상하그린농장 박상철 대표

연매출 30억원대 진입...이득 대부분 재투자

“사람들이 농업은 1차 산업이라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어렵다고하는 세탁업도 잘 한다고 소문난 세탁소는 살아남는 것처럼 어려운 와중에 경쟁력을 가져야 살아남는 목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 천북에서 낙농업을 하는 상하그린농장 박상철(31) 대표는 낙농업이 살아남는 방편으로 유기농과 스마트팜을 선택했다.

운동선수로 진로를 정했다가 뜻하지 않는 부상으로 20대 초반에 가업을 이어받은 박 대표는 축산 관련 대학을 거쳐 유기농 인증을 목표로 10년간 부친과 함께 낙농 규모를 5배 가까이 불렀다.

세 군데 농장에서 젖소 500여마리

에서 하루 6t가량(유기농 5t)의 원유를 생산해 대부분 대형 유업체에 납품하고 일부는 목장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자가 유가공으로 치즈나 요거트, 잼 등을 생산하거나 개발 중이다.

유기농 원유는 일반 목장에서 생산하는 원유와 비교해 1.7배 높은 매출이 보장돼 망설임없이 선택했고, 스마트팜은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은 젖소들의 착유 전과정을 자동으로 제어해 장기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어 전 농장 설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유기농 인증이 일정 매출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소가 아플 때 주사제 등의 처방이 어려워 지극 정성으로 아픈 소를 돌볼 수 밖에 없다”는 박 대표는 ICT 활용한 스마트팜도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 소득 상당 부분을 로봇 착유기 등의 스마트팜 설비에 재투자하



박상철 상하그린농장 대표는 유기농 인증과 스마트팜을 통해 낙농업의 부가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남들보다 한발 먼저 움직인다는 경영원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고 있다.

연매출도 지난해 30억원까지 확보했으나 당분간은 수익 일부분을 시설이나 장비 확충, 젖소 확보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중견 낙농인으로 성장한 박 대표도 어려움은 있었다. 낙농 초기 유기농 인증 목장을 시작하면서 규모를 확장하려고 착유우 50 마리 정도를 입식했다가 환경 적응 실패로 대부분 폐사하는 낭패를 겪기도 했다.

“낙담이 커 당시 1년 정도의 방황

의 시간을 보내다 가업을 이렇게 망칠수 없단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열심히 영농에 주력했다”라고 박 대표는 회상한다.

그는 재투자않는 사업은 도태한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사업 규모나 시설을 점검하고 부가가치 높은 낙농에 주력하며, 무엇보다 시장 파악과 맞춤형 공략을 위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인다는 경영원칙을 세워놓고 일한다.

그는 올해 충남도4H 연합회장으로 선임돼 농촌 현장에서의 어려움

을 들어 정부나 자치단체에 건의하고 소통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정책은 잘 마련돼 있으나 접근이 쉬어지면서 무분별한 선발이 이루어져 그만큼 쉽게 농업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이탈되는 인원이 적지 않다”라며 “적어도 본인이 일할 시장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하고 농업에 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후배 농업인들에게 조언했다.

/도정신문팀

“한국인의 입맛을, 어머니 마음으로 담아”

서천군 한담떡 이상순 대표

쌀소비 위해 떡 특산품 개발 필요

밀가루 반죽에 각종 향신료를 첨가하고 크립이나 잼을 발라 입맛을 사로잡던 빵이 인기를 누리면서 떡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다 최근들어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웰빙문화가 정착되면서 떡을 찾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다.

거기에 정통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떡들이 선보이면서 대량생산을 위한 떡제조 업체들이 늘고 떡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2020년 서천군 서면으로 향하는 고갯길 넘어 한국의 입맛을 담은 ‘한담떡’ (대표 이상순·사진)이라는 아담한



떡전문 제조업체가 창업했다.

개업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누가 떡을 사러 여기까지 오겠냐”며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지난 4년간 고객과 쌓아온 신뢰로 방문객들이 수시로 찾는 ‘맛집’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담떡은 기본적인 모시송편을 비롯해 모시개떡, 모시송송편, 떡국떡 외에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춘 오븐구이찰떡과 모시영양찰떡, 삼색가래떡 등으로

다양화됐다.

무농약으로 모시를 직접 재배해 품미와 맛이 뛰어나다는 장점 외에 몸에 해로운 방부제나 색소를 전혀 첨가하지 않은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사용하고 각종 견과류를 첨가해 한끼 식사로도 든든하며 어머니 마음으로 떡에 정성을 가득 담았다.

이 대표는 “떡을 판매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이 본연의 맛을 유지하며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인데 방부제 대신 냉동 시간과 수분조절을 통해 장기간 보관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며 “우리 떡은 자연해동이나 전자렌지에 익혀도 떡 본래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천신문사 김장환 기자



“나이가 뭐 상관”...당진 ‘회춘유랑단’ 눈길

2018년 창단 연극동아리
어르신 14명...평균 86세

서울에서 연극을 하던 문영미 씨는 고향 당진으로 돌아와 동네 어르신들이 매일 마을회관에 모여 늘 같은 얘기를 반복하며 지루해지는 모습을 보고 ‘연극을 어르신들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각종 지원정책을 검토해 2018년 회춘유랑단을 창단했다.(사진)

문영미 단장은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접해보는 것이기도 하고 대본을 외우는 것 등 듣고 배워도 몸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어르신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셨고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잘해줘서 놀랐다”고 말했다.

현재 회춘유랑단에는 정미면 산성리에 거주 중인 손간난(80), 심태진(92), 성기용(91), 정월옥(87), 김경숙(79), 정정례(82), 이길자(87), 강해정(89), 강주

자(82), 문경자(75), 김기월(79), 한남희(86), 백정기(85), 박상남(87) 등 14명의 어르신이 단원으로 있다.

문 단장과 어르신 단원들은 연극을 통해 마음을 나누자는 공통된 목적으로 열심히 연습을 한 뒤 2018년 7월 정미초에서 지역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림자 연극 ‘안국사 배바위’를 선보였고,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첫 공연에서 자신감을 얻은 어르신들은 이후 연극도 잘 해냈고, 2018년 12월 제1회 충남아마추어연극제에서 단체 은상과 무대미술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공연을 이어나갔다.

현재 회춘유랑단은 인형극, 교육극 등 여러 지역 설화와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다양한 연극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공연을 통해 배우는 데 있어서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줄 계획이다.

/당진신문 정윤성 기자

‘식물과 환경 사랑’ 음악회

4월 28일 청양 고운식물원서

한국환경관리사 총연합회(회장 이종현)는 4월 28일 청양 고운식물원에서 고운식물원 개원 21주년을 축하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등을 통해 꿈과 희망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식물과 환경을 사랑하는’ 고운 음악회를 연다.

식전 축하공연으로 사물놀이와 가수 및 탤런트 탤런트 등 5명의 특별공연



식물원 상설전시장에서 5월 10일까지 개최하는 제9회 광통요강꽃 및 새우난초 전시회.

과 함께 부르는 노래자랑 등이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2003년 4월 28일 정식 개원한 고운식물원은 자연지형 특성을 그대로 살린 37ha(11만 3천여 평)의 부지에 8800여종의 식물들이 자태를 뽐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립 자연생태 식물원이다.

2010년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6년에는 산림청의 산림생명 자원관리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청양 고운식물원 이주호 회장은 “개원 21주년 축하 음악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의미있게 생각하며 더욱 사랑받는 식물원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양고운식물원

문화와 역사의 고장 ‘충남 11경’을 그리며

내포칼럼



김곡미
연암대학교수

사탑, 솔즈베리 스톤헨지와 같이 다양한 문화가 접목된 글로벌시대에 우수한 문화유산자원은 또 다른 가치를 창조한다.

대한민국 각 도에도 꼭 가봐야 할 곳, 그 지역을 대표하는 빼어난 경치를 이트러 ‘경(景)’을 붙인다. 충남 15개 시군도 역사와 문화, 예술을 자랑하는 곳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남의 11경을 그려보았다.

필자가 추천하는 충남의 11경은 백제문화단지, 현충사, 국립생태원,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산림박물관, 안면도 자연휴양림, 계룡산 국립공원, 외암민속마을, 공산성, 국립부여박물관과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 홍성이다.

백제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백제문화단지의 사비궁, 위례성, 능사, 고분공원은 백제문화 교육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위업을 선양하는 아산 현충사는 충무공의 영전을 모시는 본전과 기념관, 고택, 활터, 정려 등이 있다. 국립생태원은 한반도의 생태계를 비롯하여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세계 5대 기후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관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조성한 생태 연구, 전시, 교육 공간으로 특화돼 있다.

국민 성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나라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보여

주는 다양한 전시관이 있다.

지방 최초의 산림박물관으로, 우리나라 산림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충청남도 산림박물관은 ‘자연과의 만남, 산림의 역사, 산림의 혜택과 이용, 고통받는 산림, 산림정책과 미래의 산림’을 주제로 산림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산림문화공간이다.

“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면 훌륭한 관광자원
충남 15개 시군에도 역사와 예술의 문화유산 산재
충남은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풍부

”

안면도자연휴양림은 국내 유일의 소나무 천연림으로 수령 100년 안팎의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다. 이 소나무 숲은 고려 때부터 궁재와 배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해 국가에서 특별 관리한 천연림이며 조선 시대부터 자라기 시작했다는 토종 붉은 소나무 안면송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집단적으로 자생하고 있다. 곧게 뻗은 소나무들은 경복궁을 지을 때 사용했다. 충남 제일의 명산 계룡산국립공원은

1968년 우리나라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나라의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산이기도 하다.

충남 아산의 관광필수 코스인 외암민속마을은 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전통마을이며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마을에 현재까지 80여 가구가 살고 있다.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만 연간 34만 명에 이른다.

는 박물관이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천년의 역사’ 홍성은 서쪽으로 천수만을 사이로 태안군 안면도와 마주하고, 북쪽으로 용봉산을 중심으로 구릉을 이루어 삼교천 유역이 군내 최대 평야이자 미곡산지로 유명하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홍주성 천년여행길을 돌다보면 성곽길에는 홍성의 자랑스러운 인물인 최영, 성삼문, 한용운, 김좌진의 흉상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동안 다녀온 여행지를 꼼꼼하게 기록한 수첩을 보니 충남의 문화유산이 더할 나위 없이 수려하고 소중한다고 느껴진다.

도정 핵심과제 ‘베이베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다녀온 샌프란시스코 유명 해안 피셔맨스 워프나 샌디에고 문화탐방 때 경험했던 1888년 작품,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 코로나도 비치 리조트 (Coronado Beach Resort)가 태안 해안에 위치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다양한 매력과 무한한 문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충남은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에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고 평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이다. 특히 충남은 더없이 멋과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충남의 문화유산을 앞으로도 소중하게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한다. 역사와 문화를 즐기는 지인들에게 충남을 적극 추천할 생각이다.

여행은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찾게 해주는 즐거운 여정이다.

여행을 하다 보면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해 관광자원으로 수익을 내며 충분히 활용하는 나라가 많다. 미국 서부의 그랜드캐년(Grand Canyon), 이탈리아 콜로세움 피사의

숲을 여는 행운의 열쇠

식물이야기

앵초

24절기 중 곡우(穀雨)에 딱 알맞게 봄비가 내리고 있다. 비가 그치고나면 나뭇잎이 무성해지고, 나무 밑엔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진다. 이즈음 숲은 더욱 울창해지고, 어두운 반음지 조건이 된다. 식물은 기본적으로 햇빛이 잘 비추는 양지바른 환경을 좋아하지만, 우거진 숲의 반음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식물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세가 좋은 환경으로 숲이 울창한 그늘 환경에 적응한 식물이 많다. 그중에서 4월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앵초를 소개하려 한다.

앵두나무꽃을 닮았다는 앵초가 개화한 모습을 보자면 분홍빛 하트를 다섯 장 붙여 놓은 듯하다. 이 모양은 고려시대 궁궐의 문을 여는 열쇠를 닮았다 하여 ‘열쇠꽃’이라는 별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앵초는 영어권에서 프리물라(Primula)라고 부르는데 라틴어 ‘Primus’는 ‘첫 번째’라는 뜻으로 이른 봄에 꽃 피는 특징을 담았다. 다른 이름으로는 카우스립(Cowslip)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Cow(소)와 Slip(배설물)의 합성어로 산과 들의 풀을 뜯어먹는 소들이 앵초도 함께 먹고 나온 배설물을 통해서 번식을 한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앵초는 우리나라 전역 산지의 계



천리포수목원의 앵초. 천리포수목원의 그늘정원에서 만날 수 있다.

■식물 생육환경

산지의 냇가와 깊은 숲속에서 자라므로 배수가 잘되면서도 습한토양이며 부엽질의 반음지 조건에서 생육이 왕성하다.

■앵초의 꽃말

하트잎이 모여 피어난 꽃의 형태를 빗대어 ‘행복의 열쇠’라고 말한다.

곡 근처에 분포하고 있는 자생식물이기도하다. 봄에 개화를 하고 여름에 종자를 맺기 위해서 숲의 생육환경을 이용한 앵초만의 생존전략이 있다. 식물이 꽃을 피우는데는 충분한 일조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깊은 숲속보다는 물이 흐르는 계곡 주변의 환경을 좋아한다. 즉 계곡 주변은 상대적으로 일조량이 길고 충분한 광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른 봄 낙엽수들의 잎이 나오기 전에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여 개화 준비를 마치고 나면 그늘

이 형성된 어두운 환경에서도 개화한 분홍색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앵초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식물이 모여있는 수목원과 식물원도 좋지만, 우거진 숲이 선사하는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이 있다. 이번 봄에는 앵초가 피어있는 숲속 산책을 계획해 보는것은 어떨까? 앵초라는 ‘행운의 열쇠’로 숲을 열고 들어간다면, 앵초가 선사하는 분홍빛 물결이 우리를 반겨줄 것이다.

/천리포수목원 강희혁 연구원



김미희 어쩌다 마주친 폰카 시



개구리 동네에는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힘껏 소리 지릅니다.
돌림노래가 제일 자신 있나 봅니다.

개구리들은 노래하는데
왜 자꾸 운다고 하는지 불만입니다.
볼이 불통한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개구리의 눈물

개구리가 울어서
연못이 깊어집니다
눈물이 만든 연못입니다

연못에 꽃이 핀다



김미희
시인·동화작가

제351회 임시회 1회 추경 등 53개 안건 처리

추경안 20억 9666만 원 삭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4일 제 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 및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9482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을 심의해 20억 9666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적극 건의’ 등 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개선을

책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확정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의 본회의 표결에서 출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이번 제351회 임시회는 10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특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했다”며 “의회가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도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5분발언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율이 심각한 농촌은 일손 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 의존도가 높다”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를 작년보다 24% 증가한 6만 명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무려 12.6% 올랐지만, 농가소득은 1994년부터 지난 30년간 1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비가 사업장 소득보다 높으면 사용자는 존립 위협을 받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돼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발달한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 제안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경로당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선태 의원은 “충남 15개 시·군 중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은 단 한 곳도 없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일반 경로당의 경우 회원 중 대다수가 비장애인이고, 점자블럭, 점자판, 핸드레일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이동이나 활동에 제약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시각장애인 1만 2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7088명으로 66% 달한다”며 “시각장애인은 노인과 장애라는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계층이기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출 문화재 환수 필요성 강조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은 국외로 반출된 충남의 문화재에 대한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제안했다.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반출된 문화유산은 9개국에 총 617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의 대표적인 반출 문화재인 ‘몽유도원도’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금동관음보살입상’ 등이 아직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며 문화재들의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옥수 의원은 “문화재 환수는 우리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환수를 위한 특단의 홍보 대책 마련과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치유농업 활성화 주문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은 치유농업과 보건복지사업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 치유농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또 다른 공익적 가치인 정신적 치유, 심리적 안정 제공 등 국민에게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주요한 산업 분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적 침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요구 반발 비판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학교보건실 약품구매 현황 자료 요구’에 대한 전교조 충남지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법’ 상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며 “자료작성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아무런 협의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충남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의원명을 명기해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충남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 발송 시 의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교조 충남지부의 보도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축산관련 사업예산 확대”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아산5)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충남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자 1차 산업인 축산업에 대한 충남도정의 역할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2023년 기준 충남의 한우 사육두수와 돼지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41만 6500두, 229만 5900두로 각각 전국 4위와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육우·젖소는 전국 2위, 산란계·육계는 전국 3위를 기록했다”며 “충남의 축산업은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10조 시대라 목소리를 높이며 홍보하던 충남의 축산 관련 예산은 2012년 1.4%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 축산 관련 정책사업 예산은 865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8%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축산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해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무원 처우개선 필요”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은 새내기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질 새도 없이 공직을 떠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6년간 충남도청 소속 자진퇴사자는 88명이었고, 이중 MZ세대는 57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64.7%에 달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업무대비 저조한 임금, 수직적 조직문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가치관 갈등 등이 주된 문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간대비 74.6%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 ‘실질적 삭감’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재 월 최대 57시간으로 규정하고, 1일 최대 4시간 제한이 있으며 이후로는 무료봉사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지사박물관 환경 개선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당진2)은 “당진시 초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과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에 충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변 환경이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도로·수로의 정비와 복개 공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박물관 진입 후 상습결빙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필요하다”며 “오르막길 결빙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충남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도 강조했다.

안면도 지포지구 사유지 제척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은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면도 지포지구는 지난 2007년 관광지로 추가·지정되면서 충남개발공사 주관으로 2017년까지 총사업비 1927억 원을 투입하는 개발계획을 세웠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민은 지난 17년 동안 개발 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유지 용도 변경 제한 등 많은 제약과 재산권 침해에 시달려 왔다.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배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충남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전담부서 설치 및 테마파크 조성 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펫코노미 또한 경제의 큰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반려동물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 반려동물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가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려동물 교육·훈련, 의료, 문화, 산업 등 놀이터를 넘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의 성숙한 문화와 복지를 이끌고 관련 사업과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여 충남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예산 중복 없이 적재적소 사용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6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은 “추경에 충청남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세부 사업에 워크숍과 포럼 등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은 “아산 화상 멘토링 사업 대상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태블릿PC가 없는 경우 PC를 적극 지원하여 학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일대가 여름철 폭우에 취약한 병목현상 지역으로 꼽힌다”면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기 전에 하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과 관련 “학생들의 존재가 지역 상권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학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어렵더라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차질 없이 2027년에는 개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중혁 위원(천안3)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도정 정책 학술연구용역비 등 본예산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예산을 나눠 쓰는 것이 아닌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서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은 일반회계에 담아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계룡)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개소별 마을 공동 인터넷망 설치 신청 접수 시에 차별받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공지가 필요하다”며 제안했다.



특성화고 방문해 ‘현장 소통’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충남드론항공고와 한국K-POP고 등 도내 특

색있는 학교를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나눴다. 이날 교육위는 두 학교의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교육, 예산 시설 등 학교 전반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은 한국K-POP고에 방문한 교육위 모습.

“도민 건강·안전 위한 정책 효과성 제고”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7일 제35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 “시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라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은 “농약 빈 병 수거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충남 하수도 보급률이 10년째 전국 최하위권이다. 먼 단위 하수도 보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은 “‘인공습지 조성’ 사

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는 인공습지의 수질과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은 기후환경국 소관 추경안과 관련 “철갑산 휴양랜드의 관리운영비는 도에서 지급한다”며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은 “생태관광은 충남의 자산이기에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사업과 관련 “국비 사업 매칭으로 인해 추진되는 사업일지라도 목적을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은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동시에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 빈틈없이” 당부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17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은 「충청남도 지역출판진흥 조례안」 심사에서 “지역출판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은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격상시키고, 매년 추진 실적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조례안 수정을 요청했다.

안장현 위원(아산5)은 「충청남도 점자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점자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해 시각장애인들이 공정한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은 「충청남도 작은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도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조례가 있다. ‘지역축제’와 ‘작은축제’의 기준과 규모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안 심사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을 빈틈없이 준비해서, 도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 “지난해 홍성군이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며, “최종 선정되기 위해 홍성군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은 “다양한 연령대의 문화관 광해설사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은 “‘보령 e-게임 대회’ 사업은 지자체가 아닌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색있는 귀촌사업 데이터화 등 제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관련 “하향식의 사업 방식을 벗어나 15개 시군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술원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변화를 주어 시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타를 잡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꿀벌 폐사를 사전에 방지할 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꿀벌 폐사 원인을 분석하고 병에 강한 새품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수 위원은 양봉농가의 피해와 관련해 “밤 농가 항공방제와 연막소독이 꿀벌 폐사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면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영호(서천2) 위원은 6월 완공될 스마트팜 교육장과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스마트팜 사관학교의 역할에 대해 “입문 교육, 선도농가 교육 등 현장 관리와 절차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은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금과 관련 “보상금 지급 대상 농가에 대한 지연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은 “고소득 작물 위주로 연구 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 생산과 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를 월별로 데이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누비는 소방관 안전대책 필요”

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소방 현장 대원에 대한 안전과 복지 사업이 누수 없도록 잘 반영해달라”며 “나이가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외상후 스트레스 해소 정책 등을 세심하게 검토·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위원(당진2)은 “해저터널 구조대 배치를 앞두고 철저한 검토로 소방관 인력과 장비 배치에 차질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은 “천안서부119안전센터와 동학사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감리비 산정 세부 내역 자료를 요청한다”며 “또한 긴급구조훈련 시 훈련 내실화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은 “일선 소방서에서는 우

수 직원에 대한 승진 기회 제공 등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김도훈 위원(천안6)은 “의용소방대와 직원의 해외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기타 국외연수 시 모두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은 “전통시장 아크차단기 설치·보급과 피난약자시설 안내표지판 등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면서도 “제도적 의무 규정과 국가적 표준화도 필요하니, 대응책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은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에게 불량 공기호흡기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은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편성돼 할 부분이 확인된다”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돼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고 특히 소방관 장비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직원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처” 강조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가 16일부터 17일까지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제출된 5조 1834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는 2024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5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은 “교직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원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대처와 소통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며 “상호 존중과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 조성으로 교직원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요구사항을 적극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은 “학교 현장에서 연기되

거나 추진이 잘되지 않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순옥 위원은 “매년 실시하는 4대 폭력 교육의 주기와 지속적인 실시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박미옥 위원은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와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학생 증가 예측을 통해 학교 증축 계획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편삼범 위원장(보령2)은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와우!
2025~2026 충남방문의 해

관광은 충남, 충남은 관광.

**300미터 앞에
형통 보호 구간입니다.
젊은 날을 기념하세요.**

K-컬처 박람회

K-스피릿을 담은 최초의 한류 문화엑스포
기간 2024. 5. 22. ~ 5. 26.
장소 천안 독립기념관 일원

제20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IoT, 드론, VR, AI 등 최신 기술 체험을 통한
미래 사회 체험 및 진로탐색 및
미래사회 유망 직종 체험 등
기간 2024. 5. 23. ~ 5. 25.
장소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속도감 있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 보령 AMC 국제 모터페스티벌

튜닝카 전시부터 집카나, 드리프트 대회까지
기간 2024. 5. 4. ~ 5. 6.
장소 보령 머드엑스포광장 일원

**잠시후, 성웅 이순신의
음결에 진입합니다.**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탄신)

백의종군길 전국 마라톤 대회, 충무공배 노젓기 대회
기간 2024. 4. 24. ~ 4. 28.
장소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전방에 맛집 집합
구간입니다.
과식에 유의하세요!**

천안 베리베리 빵빵데이

빵의 도시 천안에서 빵지순례
기간 2024. 4. 27. ~ 4. 28.
장소 빵의 도시 천안

서천 장항항 골갑축제

골독, 갑오징어잡기 체험 및 요리 장터 등
기간 2024. 5. 19. ~ 5. 28.
장소 서천군 장항항 일원

**500미터 앞에 토포자 전용
등산 명소가 있습니다.
관광, 경관, 건강셋 다 챙기세요.**

계통 향적산 종평저수지→귀룡정사→산제당→기도터→고스락
청양 칠갑산 칠갑산 장승축제 (4월 20일 ~ 21일)
공주 태화산 마곡사→은적암 입구→활인봉→주릉 갈림길→샘골
서산 일락산 개심사→조망대 삼거리→민머리봉→정상→셋고개→용현휴양림→삼존마애불

**잠시 후, 충남의
일품 축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면천읍성-진달래 민속 축제

영랑의 효 정신과 함께하는 진달래 축제
기간 2024. 4. 20. ~ 4. 21.
장소 면천읍성 일원

석장리 구석기 축제

석장(Re(리) 1964, 구석기 세계로!
기간 2024. 5. 3. ~ 5. 6.
장소 공주 석장리박물관

충남에 도착하였습니다...만!
안내를 종료하지 않겠습니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까지
안내를 지속합니다.**